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11, No.2, pp.279-288, Dec. 2023
https://doi.org/10.22961/JHCLS.2023.11.2.279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동향 및 측정도구 분석 :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백수미[1*], 박수정[2], 김지선[2], 이수연[2]
[1]중원대학교 간호학과, [2]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Measurement Tools for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 A Study among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Su-mi Baek[1*], Su-jung Park[2], Ji-Seon Kim[2], Sue-yoen Lee[2]
[1]Professor,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Goesan-gun, Korea
[2]Student,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Goesan-gun, Korea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동향 및 측정도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 '임상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실습만족', '실습'의 주제어로 검색하여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91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정된 논문은 양적연구가 91편(100%), IRB 미승인 연구 75편(82.4%), 연구도구는 신뢰도·타당도 검증이 부족하였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 관련 변수는 학생 개인 측면의 변수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개인역량·정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35종이었다. 향후 간호 전문직 발달 측면에서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trends and measurement tools related to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with the goal of offering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 search was conducted using combinations of the keywords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practice' from 1985 to 2022 in three domestic databases. After applying selection/exclusion criteria, a final analysis was performed on 91 studies. The papers analyz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91 quantitative studies (100%), and 75 studies(82.4%) lacked IRB approval. Furthermore, the research tools used in these studies often lacked reliability and validity verification. Additionally,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variabl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cused on individual students, with 35 types associated with individual competency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various efforts in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o improv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Systematic review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과 수요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임상수행 역량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간호사는 개별적인 임상상황에서 자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종합하여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1],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 한국간호인증평가원의 인증제도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상수행 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

*Corresponding Author : Su-mi Baek(Jungwon Univ.)
E-mail: godqhrgksdlstod@jwu.ac.kr
Received Oct 20, 2023 Revised Nov 05, 2023 Accepted Nov 20, 2023

기 위해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간호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 반면, 학습성과 중심의 간호 교육 커리큘럼은 간호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쟁적인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4-5]. 특히 임상 실습은 실습기관의 규모 및 정책, 인적인 요소로 인해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6-7].

간호 임상실습은 간호 실무에서 체계적이며 학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가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실습의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자세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8]. 한국간호인증 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4주기 간호인증평가부터 임상실습 최소 필수이수 조건을 학생 1인당 총 1,000시간에서 22학점 이수로 변경하였다. 간호학과의 전체 이수학점이 130~140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임상실습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7%에 해당한다[9]. 그러나, 임상실습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중요성에 비해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학습자 측면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이 실제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임상실습 경험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만족도를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한편, 간호대학생에게 미치는 임상실습만족도 영향을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10]. 더불어 소진 수준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11], 임상수행능력[12]과 돌봄효능감[1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스러운 임상실습 경험은 임상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14], 이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 진로 선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 관리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대부분 학생의 자아개념[15], 자기효능감[16], 자아탄력성[17] 등 학생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연구의 흐름은 이후에 임상 스트레스[18-19], 스트레스 대처방식[17]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20-21], 간호전문직관[22]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및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증진이 임상실습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인 돌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증진하기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임상실습만족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국내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동향 및 연구도구를 분석하여 향후 임상실습만족도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의 임상실습만족도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연구도구 및 주요변수

를 고찰함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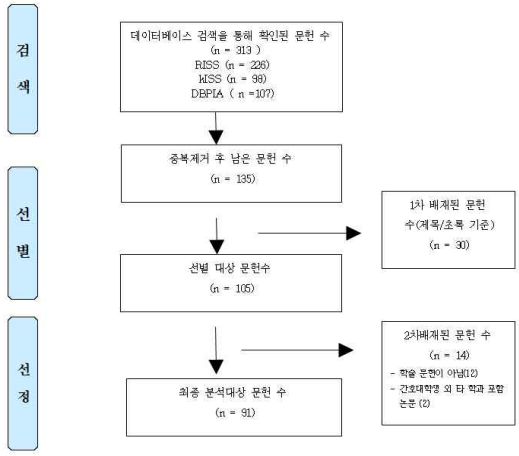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 문헌들은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 임상실습만족도 연구를 학술지에 게제하기 시작한 1982년부터 2022년까지 간호대학생 대상 임상실습만족도 변수를 포함한 연구로, 문헌고찰 상의 엄격성을 갖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과정의 국제적 표준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의 권고[23]에 따른 단계적 자료 추출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

본 연구는 검색과정 전 다음과 같은 선정 및 제외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검색의 선정기준으로 1) 국내 구)3년제,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 2) 임상실습만족도를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포함한 문헌 3) 동료평가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으로 설정하였고 제외기준으로는 1) 연구대상이 간호대학생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간호대학생과 다른 대상을 혼합한 문헌 2)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 3) 학술대회 발표연구 4) 전문확인이 불가능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을 위한 문헌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학술데이터(DBpia: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문헌검색식은 '간호대학생' and '임상실습만족도' , '간호대학생' and '실습만족도'를 1차 검색하였으며,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간호대학생' and 임상실습', '실습만족', '실습'으로 2차 검색하였다.

2.2 문헌 선택 과정 및 자료분석

문헌 선택과정 1단계인 '검색(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확인된 문헌은 국문 논문 총 313편 이었다. 2단계인 '선별(Screening)' 과정을 통해 중복된 문헌 178편을 제외하였고, 연구자 4인이 교차로 제목 및 초록 검토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헌 30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3단계인 '선정(Eligibility)' 과정에서는 4명의 저자가 원문을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본 연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헌 14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91편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 1] PRISMA Flowchart
[그림. 1] PRISMA 흐름도

3. 연구 결과

3.1 연구설계별 출판추이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 연구의 연도별 현황은 1984년에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최초로 발표된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9년, 2020에는 각 11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전체 연구 중에서 실험연구 4편(4%)을 제외한 87편(96%)이 조사연구이었으며, 실험연구 중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는 3편, 비동등성 실험설계는 1편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

문헌분석에 포함된 총 91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IRB 승인여부, 학년, 연구 대상자, 실습 특성으로 확인하였다. IRB 승인여부 분석결과 IRB 미승인 연구는 75편(82.1%), IRB의 승인 연구는 16편(17.4%)이었다. 선정된 총 91편의 논문 중 46편(50.6%)이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4학년이 11편(12.1%), 3학년이 10편(10.9%)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분석결과 실험연구대상자는 41~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50.0%)이었으며, 조사연구대상자는 251명이상 28편(32.2%), 151~200명 대상 연구 23편(26.4%), 20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21편(24.1%)으로 나타났다.

3.3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변수와의 연구결과

국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관련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인 91편에서 20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203개의 변수는 임상실습 관련변수(52), 개인관련변수(107), 사회/조직 관련변수(13), 전문직관/진로 관련변수(31)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변수는 임상실습특성(22), 특수 부서 실습특성(3), 학교/적응 특성(25), 기타(2)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변수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임상수행능력 12편, 전공만족도 12편이었다.

또한 개인 관련 변수는 정서적특성(94), 개인역량 특성(11), 기타(2)이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16편, 자기효능감 13편, 우울 12편, 자아존중감 10편 순이었다.

사회/조직관련 변수는 사회적 특성(11), 조직특성(2) 이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대인관계 8편이었다. 전문직관/진로 관련변수는 전문직관 특성(24), 진로 특성(7)이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7편, 간호사 이미지 5편, 간호전문직관 4편 순이었다.

[Table 1] Variables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표 1] 임상실습 만족도관련 변수 (N=203)

대분류	소분류	변수
임상실습 관련 변수(52)	임상실습 특성(22)	수행경험(1), 실습수행도(1) 온라인 실습(2), 임상수행능력(12) 임상실습 교과만족도(1), 임상실습기관(1) 임상실습강점(1),임상실습기관(1) 임상실습문제점(1), 현장실습(1)
	특수 부서 실습 특성(3)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1), 중환자 실습 만족도(2)
	학교/적응 특성(25)	교수효율성(4), 대학생활만족도(4) 대학생활적응(2), 전공만족도(12), 학년(3)
	기타(2)	환자안전문화태도(1), 환자안전문화실천(1)
개인 관련변수(107)	정서적특성(94)	감성지능(6), 감정노동(2), 긍정심리자본(1), 긍정적 정서(1),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2), 대처(2), 돌봄호능감(1), 메타인지(1), 무례함(1), 문제중심적 대처(1), 비판적사고 성향(3), 성취동기(1), 셀프리더십(7), 소진(2), 스트레스 대처방식(1), 우울(12), 자기주도성(2), 자기효능감(13), 자아개념(1), 자아존중감(10), 주관적 행복감(2), 지각된 스트레스(1), 진성리더십(1), 피로(1), 회복탄력성(2), 수행자신감(1), 임상실습 스트레스(16)
	개인역량 특성(11)	임상추론역량(1), 간호활동경험(1), 기본간호수기술(1), 의사소통능력(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1), 핵심기본간호술 지식수준(2)
	기타(2)	건강상태(2)
사회/조직 관련변수(13)	사회적특성(11)	대인관계(8), 동료관계(3)
	조직 특성(2)	조직몰입(1), 조직시민행동(1)
전문직관/진로 관련변수(31)	전문직관 특성(24)	간호사 역할이행(2), 간호사 이미지(5),간호전문직관(4), 전문직 자아개념(7),전문직정체성(1), 직업윤리(1), 직업정체성(4)
	진로 특성(7)	진로결정수준(1), 진로정체감(2), 진로준비행동(2), 진로탐색효능감(1), 진로태도성숙도(1)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ools
[표 2] 연구도구의 특성 (N=75)

도구 개발자	1차 수정보완자	2차 수정보완자	문항수	척도	하위문항(문항수)	연구 편수
이숙자(1980)	-	-	30	1-5점	교육내용,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환경/(문항수 미기재)	1
	김귀숙(2002)	-	27	1-5점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평가, 실습환경/(문항수 미기재)	1
	이점덕(2006)	-	27	1-5점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평가, 실습환경/(문항수 미기재)	4
	이점덕(2006)	박현주·장인준(2010)	31	1-5점	대인관계(4), 실습내용(6), 실습시간(4), 실습지도(8), 실습평가(5), 실습환경(4)	1
	구현영·임형석(2013)	-	20	1-5점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4), 실습평가(3), 실습환경(4)	1
이숙자(1980) 정혜경(1999)	이성은(2001)	-	20	1-5점	실습교과(5), 실습내용(5), 실습지도(5), 실습환경(5)	1
조결자·강현숙(1984)	-	-	25	1-5점	실습내용(5), 실습시간(5), 실습지도(4), 실습평가(3), 실습환경(8)	3
	심형순(2001) 정영해(2003)	최미영·문태영·이현지(2013)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9), 실습평가(3), 실습환경(7)	1
	이순희·김숙영·김정아(2004)	-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9), 실습평가(3), 실습환경(7)	41
	한용희·손인순·강경화·박광옥(2010)	-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9), 실습평가(3), 실습환경(7)	2
조결자·강현숙(1984) 이성은(2001)	이순희·김숙영·김정아(2004)	-	31	1-5점	실습교과,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평가, 실습환경/(문항수 미기재)	8
김현주(1997)	김은하·오윤희(2002)	-	34	1-5점	대인관계, 실습과목, 실습장소, 실습평가, 실습환경/(문항수 미기재)	1
이은경(1999)	성가연(2008)	-	20	1-5점	실습내용의 적합성(4), 실습성취도(6), 실습평가의 적절성(6), 실습학생 만족도(3), 실습학생태도(1)	1
유문숙·유일영(2001)	-	-	24	1-5점	강의 진행 및 내용, 교수자의 강의준비,학습자의 수강태도, 학습평가/(문항수 미기재)	1
이순희(2004)	-	-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7), 실습시간(3), 실습지도(8), 실습평가(3), 실습환경(5)	4
서원희(2006)	-	-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9), 실습평가(3), 실습환경(7)	1
이점덕(2006)	박현주·장인순(2010)	-	31	1-5점	대인관계(4), 실습내용(6), 실습시간(4), 실습지도 (8), 실습평가(5), 실습환경(4)	1
이종연·이은진(2010)	채민정(2016)	-	4	1-5점	수업 후 해당 분야 관심도, 온라인수업, 재수강 여부, 타 학생에게 추천 여부/(문항수 미기재)	1
박미숙·이미현 구정아(2011)	-	-	31	1-5점	실습교과(3), 실습내용(6), 실습시간(3), 실습지도(9), 실습평가(3), 실습환경(7)	1

3.4 연구도구 특성 분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변수로 사용한 분석대상 논문의 측정 도구를 확인한 결과, 총 91편의 논문 중 75편이 임상실습만족도 연구도구의 하위 문항을 기재하였다.

도구의 하위문항이 기술된 75편의 논문 중 이숙자[24]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한 논문이 8편(10.6%)이었고 그 외 조결자 등[25]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한 논문이 총 51편(68%)이었다.

조결자 등[25]과 이성은[26]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희[27]가 수정·보완한 도구는 총 8편(10.6%)에서 사용되었다. 그 외 다른 연구 도구들은 1편씩 사용되었다.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개념은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지도', '실습평가', '실습환경'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모두 Likert scale 1~5점을 사용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40여 년간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및 연구도구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 대상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계량적·실증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편위된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학과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연구 편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9년(11편)에 가장 많은 편수가 출판되었으며, 그중 조사연구는 87편(96%), 중재연구 4편(4%)이었다. 국외에서는 현대적인 연구방법의 한 축인 혼합연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조직적 변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Fernandez-Garcia 등[2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변인을 혼합연구를 통해 탐구하였다. 양적연구 결과는 임상교육자, 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질적 연구 결과에서는 병동의 전공과 특성, 임상교육자 수, 그리고 임상교육자 대비 학생 수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규명하였다.

이처럼 실증주의적 관점만으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현상학적 연구방법 및 혼합연구방법 등을 통해 양적 결과와 현상의 본질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현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IRB 승인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IRB 미승인 논문이 75편(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해당 논문의 연구저자가 간호학과 교수이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로 인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정인숙 등[25]의 국내 간호학 학술지의 투고규정의 연구윤리 기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간호학 연구의 경우 조사연구, 관찰연구이며 이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신체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간호실무, 간호연구의 영역에서 윤리성에 관심이 적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수-학생 관계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 동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의 윤리적 타당성을 약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 윤리 준수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의 임상실습만족도 연구는 대부분 학생 개인측면의 변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석논문 91편 중 변수 종류는 전체 203개이었으며 그 중 개인관련 변수는 107개(52.7%)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이었다.

연구자가 임상실습만족도를 학생 개인의 심리적·적응 관점에서 주로 분석한 것은 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나 성과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26]. 현재 간호 교육기관과 실습기관 불균형 문제로 인한 임상실습 질

저하는 임상실습 교육의 성과를 저하하는 주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수진 등[27]은 국내 전문직 실습교육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기회주의적 교육 형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습병원에 대한 기준 설정, 교육적 책무성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국외에서는 임상실습의 환경(임상실습환경, 배치병원, 취업의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28-29], 국내연구는 주로 학생 개인의 정서적/역량 특성에 집중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Inocian[30]는 11편의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돌봄 행동과 임상실습환경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며, 임상실습 환경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실습 환경 등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탐구하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임상실습만족도 도구는 대부분 연구자가 1차 개발하거나 자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본문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문항을 제시한 논문은 총 75편으로, 사용된 연구도구의 종류는 19종류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결자와 강현숙(1984)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총 47편(58.7%)에 이르며, 이 중에서 이순희·김숙영·김정아(2004)의 2차 수정·보완한 도구를 채택한 연구 편수는 총 41편에 달했다.

그러나, 조결자와 강현숙(1984)은 초기 도구 개발 시 20명 학생이 대상이었으며, 원문에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과정 기술이 미비하여 도구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1984년에 개발된 도구가 이후 재검증 없이 일부 문항만 수정하여 연구자들이 반복 재사용하면서 최근 변화된 임상실습 교육과정과 환경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도구 자체의 구성요인이 적합한지 등의 의문으로 인해 본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학문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최신의 교육과정 및 환경을 반영하고, 도구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CLEI(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도구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CLEI 도구는 2003년에 개발되었으며, 학생의 인식 차이를 개인화, 학생 참여, 과제 지향, 혁신, 개별화, 그리고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실제학습환경과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도구 개발시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문헌고찰과 간호학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개발하였다[31].

아울러, 최근에는 Phillips et al[32]이 CLEI를 활용하여 출판된 22편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간호 커리큘럼과 임상경험은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설계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Ekstedt et al[33]은 전통적인 임상실습 운영 모델과 뉴 모델(동료학습 및 일일 프리셉터 배치)간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CLES+T(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upervision and Nurse Teacher evaluation scale)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뉴 모델에서 둘 이상의 프리셉터를 가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향후 국외 연구와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임상실습만족도를 연구하여 선행연구 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대하고, 올바른 함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제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

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첫 번째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 변수 및 측정도구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상실습만족도는 연구방법론, 연구윤리, 연구도구, 연구변수 측면에서 국내의 연구는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책과 개선전략 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재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임상실습만족도 증진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에 대한 연구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임상실습만족도와의 다양한 변인의 인과성 규명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측면 이외에도 실습프로그램, 실습환경 등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E. Simpson and M. Courtney,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8, no.2, pp.89-98, 2002.

[2] M. Fukada, 'Nursing competency: Defini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Yonago acta medica,* Vol.61, no.1, pp.001-007, 2018.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 manual for universities for the evaluation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2023 school year', 2022.

[4] M. Kachaturoff, M. Caboral-Stevens, M. Gee and V. M. Lan, 'Effects of peer-mentoring on stress and anxiety level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36, no.4, pp.223-228, 2020.

[5] F. A. Ahmed, N. Alrashidi, R. A. Mohamed, A. Asiri, A. A. Ali, K. H. Aly, Khaled, W. G. Nough, N. A. Demerdash, S. A. Marzouk, A. M. Omar, M. M. Marzouk, S. H. Alkalash, S. M. Moursy, D. E. Fadila, S. S. Eldin and A. A. Almowafy, 'Satisfaction and anxiety level during clinical training among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Vol.22, no.1, 2023.

[6] S-J. Shin, Y-R. Tak, R-Y. Song, S-H. Kwon, J-A. Song and J-S. Kim, 'Improvement Strategie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o Strengthen Clinical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3, no.2, pp.104-116, 2022.

[7] B. Arkan, Y. Ordin and D. Yılmaz,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related to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factors affecting to their clinical learning process', *Nurse Educ Pract,* Vol.29, pp.127-132, 2018.

[8] E-H. Gil,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Vol.13, no.1, pp.43-51, 2018.

[9] K-H. Yang, S-J. Park and G-Y. Choi, 'Reflection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Nursing Department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5, no.4, pp.69-78, 2021.

[10] H-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29-1144, 2015.

[11] M-S. Kim and J-A. Park, 'Effects of incivility experienced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rnout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0, pp.811-828, 2018.

[12] G-Y. Kim,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2, no.2, pp.63-71, 2022.

[13] S-G. Kim and E-S Do,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231-239, 2019.

[14] D-W. Kwon, H-S. Park and S-H. Y, 'Experiences of Clinical Career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9, no.2, pp.449-462, 2018.

[15] K-J. Cho and H-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16] Y-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6, no.3, pp.307-315, 2009.

[17] W-J. Park and J-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65-375, 2011.

[18] S-H. Jeong and S-H. Park,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16, no.1, pp.47-54, 2013.

[19] J-Y. Cho and I-H. Chu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9, no.1, pp.29-39, 2019.

[20] M-R. Lee and M-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197-208, 2018.

[21] E-J. Lee, H-J. Kim, E-B. Park, J-W. Park, M-J. Jung and J-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 pp.263-278, 2018.

[22] Y-S. Seo, C-Y. Jeong and B-H. Kang,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Health Science*, Vol.7, no.2, pp.1257-1265, 2019.

[23] D. Moher, A. Liberati, J. Tetzlaff and D. G. Altman,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icine*, Vol.6, no.7, 2002.

[24] S-J. Lee,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10, no.2, pp.41-52, 1980.

[25] K-J. Cho and H-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26] S-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2, pp.333-348, 2001.

[27] S-H. Le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Chungang University,* 2016

[28] S-H. Lee, S-Y. Kim and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29] D. Fernandez-Garcia , M. C. Giménez-Espert, P. C. Hernández and V. J. Prado-Gascó, 'Do organizational variables influence satisfaction with nursing student practices?',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Vol.71, 2021.

[30] I-S. Jeong, Y-R. Um and K-S. Kim, 'Ethic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in the Publication Guidelines of Nursing Journa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1, no.1, pp.63-71, 2008.

[31] S-Y. Shin and S-Y. Kw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Verification of a Measurement Tool for Educational Satisfaction i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4, no.3, pp.107-132, 2013.

[32] S-J. Shin, E-B. Yang, E-H. Hwang, K-H. Kim, Y-J. Kim and D-Y. Jung,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19, no.2, pp.76-82, 2017.

[33] S. Lamont, S. Brunero and K. P. Wood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lacement-The perspective of nursing students from multiple universities'. *Collegian,* Vol.22, no.1, pp.125-133, 2015.

[34] M. C. Rodríguez-García, L. Gutiérrez-Puertas, G. Granados-Gámez, G. Aguilera-Manrique and V. V. Márquez-Hernández, 'The connection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supervision of nursing students with student satisfaction and future intention to work in clinical placement hospitals', *J Clin Nurs,* Vol.30, pp.7-8, 2021.

[35] E. P. Inocian, M. B. Hill, R. F. D. Felicilda-Reynaldo, S. H. Kelly, E. D. Paragas and M. T. Turk, 'Factors in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that influence caring behavior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 Pract,* 2022.

[36] D. S. K. Chan, 'Validation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25, no.5, pp.519-532, 2003.

[37] K. F. Phillips, Mathew L, Aktan N and Catano L, 'Clinical education and student satisfaction: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ciences,* Vol.4, no.2, pp.205-213, 2017.

[38] M. Ekstedt, M. Lindblad and A. Löfmar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supervision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upervision models-a comparative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Vol.18, no.1, pp.1-12, 2019.